유적지 순례 111

給事中公派祖 諱 衡允과 諸子孫

급사중공파조휘 형윤과 제자손

△창은재사 전경

△급사중공 단소(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항재로 274-6)

△급사중공 신도비

△11세 절,12세 서,13세 석화 유허비

△14세 언신, 16세 자용, 19세 효량 유허비

△18세 상 묘소(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9세 희맹 묘소(문방리 선영 아래)

給事中公派祖 휘 衡允

공의 관직은 급사중(給事中)이며 또는 전서(典書)라고도 한다. 고려 문종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종4품 대중대부(大中大夫) 급사중(給事中) 1인을 두어 임금이 하는 일의 득실을 간(諫)하게 하였는데 중사(中事)로 개칭 하였다가 충렬왕 24년 환칭하고 공민왕 1년 다시 중사로 하였다는데 종 4품 대중대부로 충렬왕, 충선왕조에 전서랑 상서 이품으로 공로가 많았다.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명문기록으로 확인된바 급사중공은 고려 고종 33년 5월에 국학(國學)의 학유직임(學諭職任)에 있다가 특별히 선발되어 사정순(史挺純)이라는 인물과 함께 울릉도(鬱陵島) 안무사(安撫使)가 되어 나갔다. 이때는 그 종형(從兄) 추밀공 휘 수평(守平)이 국가추요(國家樞要)의 현직인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있다가 졸하기 4년 전이 되고 충헌공(忠憲公) 위(韙)가 례빈소경 송언기(宋彦琦)와 함께 사헌대(司憲臺)어사(御事)로 신흥 몽고제국에 공헌사(貢獻使)로 파견되는 고종 27년 후가 되었다. 이로서 공은 충헌공과 동시대인으로 추정되지만 복야공 수홍(守洪)의 손자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미보에 복야공의 손행(孫行)에 입록된 것은 오류이고 공이 처음 대동보에 입록된 것은 영조 10년 갑인보 별보에 계대 미상이라 하였으며 1985년 안동의 태사묘 숭보당에서 8세 이여(利輿)의 자 동정 배융교위(同正 陪戎校尉) 엄(嚴)의 아들 형윤(衡允)으로 급사중파조로 확정하였다.

급사중공 단소는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23세 창은공(蒼隱公) 종길(宗吉) 후손의 세거지로써 횡성종친회에서 2002년부터 대구, 성주,청송 등 각처 후손들이 공론하여 2009년 창은공 재실 언덕에 단소를 설단하고 신도비를 세웠다.

또 단소 계하에 11세 보승별장 절(節), 12세 검교별장 서(瑞), 13세 부사 석화(碩和), 14세 통덕랑 전의시사 언신(彦臣), 16세 진보현감 자용(自庸), 17세 효량(孝良)의 유허비를 세웠다.

15세 직장공 명리(直長公 明利)

조선조에 사옹원 직장동정이 되었다. 안동 영가지에 안동부 동문밖 용흥리에 세거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재능과 기량이 특이하였으며 18세에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심산에 들어가 심신을 수련하는 중 한 여자를 만나 재상가의 처녀인지라 남매의 의를 맺고 산막에 거처하며 내외를 분별히 하였다. 그 후 처녀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니 부모가 아내로 주려하니 공이 남매의 의를 맺었으므로 그럴 수 없다 하고 사양하였다고 한다. 공은 우왕 3년 난을 피해 청송으로 옮겨 안덕에 시거하였다. 묘소는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지동이며 대록(大麓)의 제2고분으로 사방석장분이다.

직장공의 아들은 자용(自庸), 자공(自恭), 자성(自誠)이 있다.

자용(自庸)은 세종실록에 세종 10년 안음현감, 동 15년 청하현감, 동 23년 진보현감에 배하였다. 장락원정으로 추증되었다.

자공(自恭)은 사직이며, 자성(自誠)은 세조 1년 실록에 돈용교위로서 좌익원종공신이다.

직장공의 손은 효온(孝溫), 효량(孝良), 수(倕), 목(穆)이다.

효량(孝良)은 생원이고 세종 20년 문과급제하였다. 집현전 학사를 거쳐 예문관 직제학이고 서울로 이거하였다. 세조 1년 좌익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사후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후사는 양(陽)이다.

18世 상(詳)

서울에서 성주로 이거하였다. 후에 자손이 귀히 되어 공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수여포에 있다. 후사는 희증(希曾), 희안(希顔), 희맹(希孟)이다.

수암공(水庵公) 희맹(希孟)

호는 수암이고 성종 3년에 출생하여 연산군 사마시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중종 2년 별시문과 급제하고 정난공신 3등에 올랐다. 중종 7년 성절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홍문관 정언, 사헌부 장령 등을 거쳐 중종 11년 나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재직시 치적이 현저하여 관찰사의 표창을 받고 조광조가 능주에서 사사되는데 치상하였다. 중종 16년 장락원정으로 가자되고 동 18년 형조참의(刑曹參議), 중종 19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재임 중 병으로 사직하고 귀로에 영월에서 졸하니 수 53세였다. 묘소는 경남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선영 하에 있다. 문형(文衡) 인재 홍섬(洪暹)이 비문을 짓고 판교 박영이 전하였다. 후사는 응정(應挺), 응창(應昌), 응득(應得), 응인(應仁)과 1녀를 두었다.

20世 묵암공(默庵公) 응정(應挺)

공은 연산군 4년에 출생하여 중종 17년 식년시 성주 거주 유학으로 생원3등에 합격하였다. 중종 23년 별시문과 급제하였다. 예문관 검열, 홍문관 교리 등을 거쳐 중종 28년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중종 36년 진휼사(賑恤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지방에 나가고 동 37년 중국에 표류 중인 조선인을 송환 하는 사은표를 받들고 가는 사은사(謝恩使)의 부사가 된다. 동 38년 승정원 부승지, 명종 1년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고 황해도 관찰사(觀察使)로 부임하였다. 명종 2년 양재벽서사건이 나 강진으로 유배 되었다가 단천, 문의로 이배되고 명종 8년 방면되었다.

명종 13년 경주부윤, 동 16년 안동부사로 **태사묘(太師廟)**를 중수하고 묘정(廟庭)에 비문(碑文)을 지어 세웠다. 동 19년 졸하니 수 67세였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10권에 사적이 나오고 퇴계(退溪)이황(李滉)이 제문을 지었다. 묘소는 성주군 선남면 오도종리에 있으며 문형(文衡) 낙촌 박충원(朴忠元)이 비문을 짓고 아우 응인이 글씨를 썼다. 퇴계(退溪)는 제문(祭文)을 써 보냈다. 후사는 기재공(起齋公) 용(容), 과 수(守)를 두었다.

21世 기재공(起齋公) 용(容)은 중종 10년에 출생하여 중종 29년 식년시 서울거주 유학으로 생원에 합격하고 중종 39년 별시문과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다.

인종 1년 의정부 사인으로 발탁되고 명종 1년 부수찬으로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경연(經筵) 시독관(侍讀官)을 역임하고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명종 12년 암행어사(暗行御史)로 경기도에 나갔다. 명종 13년 졸하니 44세였다. 묘소는 성주군 선남면 오도종리에 있다.

21世 수(守)는 기재공의 아우로 중종 23년 출생하여 찰방을 지냈으며 선조 13년 졸하였다. 묘소는 의정부시 호원동에 도봉산 아래 있었는데 성주군 선산으로 이장하였다. 이장시 출토된 관곽(棺槨)과 수십점의 명기를 영남대학 박물관에 기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학술조사보고서 34책으로 발간하였다.

후사는 경남(慶男), 유남(裕男), 충남(忠男)을 두었으며 경남은 백부 용(容)에게 출계하였다.

22世 경남(慶男)

명종 13년에 출생하여 서울 유학으로 선조 12년 식년시 생원시 합격하였다. 선조 32년 실록에 사옹원 봉사로서 왕비를 호종한 공으로 사도시직장에 제수되었다. 선조 33년 국장도감 낭청을 지내고 선조 34년 유릉의 영악(靈幄)에서 화재가 났는데 공은 귀밑에 머리가 타면서도 재궁(梓宮)을 안전케 하니 이 공으로 가산군수에 특제되었으며 선조 40년 옥천군수로 나갔다. 광해군 1년에 졸하니 수52세이다. 묘소는 의정부시 호원동 부친 묘소옆에 있었는데 1999년 도로개설로 성주군 선고묘 계하 우측으로 이장하였다. 감사 정각(鄭殼)이 비문을 지었다. 후사는 창은공(蒼隱公) 종길(宗吉)과 복길(復吉)을 두었다.

23세 창은공(蒼隱公) 선조 16년에 출생하여 인조 1년 서울을 떠나 횡성의 창봉에 낙향하여 학행을 닦았다. 공릉참봉으로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숭정처사라는 유명을 남겼다. 효종 2년 졸하니 수 69세이다. 공의 일생은 이야순에 의해 전(傳)으로 써지고 행의가 존주록(尊周錄)에 들어갔다. 묘소는 횡성군 공근면 회진동에 있으며 미수 허목이 비문을 지었다. 후사는 익(禾翌), 목(穆), 육(陸), 색(穡), 직(稷)과 4녀를 두었다. 익(禾翌)은 호가 양한재(養閒齋)이며 광해 4년에 출생하여 인조 17년 식년시 생원에 합격하였다.

권수(權守)와 권경남(權慶男) 부자의 묘 조사보고서

의정부시 호원동 원심사 계곡일대에 안동권씨급사중공파의 선산이 있었다. 권수와 배위 진주하씨의 쌍분이 능선사이 계곡에 있었고 그 아래 아들 권경남과 배위 함평이씨 합장묘가 있었다. 당시 국도 3호선 우회도록 개설공사로 원래 지형을 잃은 상태였다.

권수(權守)의 묘광 내부에는 내,외관과 명주천, 한지, 돗자리 등 유기물질이 매목되었고 지표하 4.5m, 3m 정도에 2m 떨어져 설치되었다. 내외관의 회곽은 이장 중 파손되고 북장벽과 서단벽 일부만 잔존하였다. 길이 240cm,너비110cm,깊이84cm 로 3중관으로 되었다. 석물은 묘표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과 묘표석이 있었다.

권경남(權慶男)의 묘는 권수의 동쪽에 있고 곽은 두 목관 사이에 회벽을 설치하고 부장품인 명기(明器) 22점이고 석물은 묘표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이다. 백자 명기들은 모두 23점으로 백자잔, 백자병, 백자유개홍, 백자전접시 백자대접, 백자유개아, 백자탁잔,백자마 백자여자인물상,백자남자인물상 등이 나왔다.

20세 지족당(知足堂) 응창(應昌)

연산군 6년에 출생하여 중종 14년 사마시하고 중종 23년 식년시 문과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수찬 등을 역임하고 황태자 탄생 하례사의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북경에 다녀왔다. 중종 39년 병조참판 겸 좌우빈객, 경상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인종 1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형조, 이조, 호조참판이 되고 명종 2년 벽서사건으로 순천으로 유배되어다가 명종 8년 방면되었다. 명종 12년 홍주목사, 명종 16년 남양부사로 나갔다. 명종 18년 오위장, 동년 공조참판으로 천추사(千秋使)와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명종 20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고 다시 이조참판이 되었다. 선조 1년 서울집에서 졸하니 수 69세였다. 퇴계집에 만시(挽詩)와 주문(註文)이 있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에 오르고 유고로 지족당집을 남겼다. 연려실기술 10권에 사적이 나온다. 묘소는 충남 대덕군 진잠면 관저리에 있다. 신도비문은 문소인 김정모가 지었다. 후사는 심(審), 풍암공(楓巖公) 식(寔), 선(宣)과 3녀를 두었다.

풍암공(楓巖公) 식(寔)은 중종 30년에 출생하여 명종 30년 식년시 생원,진사 양장에 합격하였다. 또 선조 6년 식년문과 을과 급제하였다. 묘소는 대덕군 진잠면 선고 아래에 설단하였다.

20세 송계공(松溪公) 응인(應仁)

퇴계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문장과 경학(經學)이 일세에 뛰어났다.

생년은 여문화가 찬한 묘갈명에서 正德 신사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금계(錦鷄)의 시와 공의 시 모두 동경(同庚)라는 말이 있는데 금계는 正德 丁丑생이니 공은 아마도 정축생인 듯하니 중종 12년이다.

금계 황준량이 서애 유성용 등과 교유하며 명나라에 들어가 황제로부터 한리학관(漢吏學官)의 관작을 받았다. 명종 17년 문장이 능한 일본사신이 오자 선위사(宣慰使)에 특제되어 접대한다. 왕이 문장이 능한 일본사신이 온다고 하는데 물으니 예조에서 권응인은 시장에 능하여 비견할자 드므니 관찰사에게 역말을 타고 선위사 일행을 따라 있으면 급할 때 돕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당시 문단에 송대의 시풍이 유행했는데 공이 만당의 시풍을 받들어 시문평론가로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당대의 명필가였다. 저서로 송계만록, 송계집 7권을 남겼다. 송계집에는 금계와 주고 받은 시가 여러편 있다. 연려실기술 5권에 사적이 나오고 도남사에 제향되었으며 진사 도우경(都禹璟)이 전(傳)을 지었다.

묘소는 성주군 선남면 오도종리 해동에 있다. 아들은 부(富)이고 손(孫) 충남(忠男)은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자료제공 및 감수 : 급사중공파회장 권욱형, 기사 : 竹軒 權景晳〉

△20세 응정 묘소 (성주 선남 오도정리)

△ 20세 응창 묘소 (충남 대덕 진잠 관저리)

△20세 응인 묘소(성주 선남 오도정리)

△21세 수 묘소(성주 선산)

△수 묘소 부장 유물 백자용마, 여자인물 앞치마, 직령포

△22세 경남 묘소(선고묘 계하)

△급사중공,창은공 회관(횡성읍 문화체육로58)